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1 낙산사 · 홍련암



▶한줄 요약
낙산사에 가면 꼭 보타전을 참배하고 꼭 칠관음 뒤편에 자리한 32관음응신을 친견하시라. 우리 곁에 있는 관음보살이 그곳에 자리하시니.

관음보살의 가피가 이어지다

관음보살 계신 새해맞이 성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해를 보고자 동해로 간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맞이하는 일출도 장관이다. 해수관음상, 의상대, 홍련암 근처가 최적의 장소다. 새해 첫날 일출에 의미를 두면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첫날일 필요는 없다. 낙산사 일출은 언제나 좋다. 마치 관음보살의 자비광명 같다. 그 때문인지 '일출이 아름다운 낙산사 의상대'가 양양 8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일출만이 전부는 아니다. 낙산사 의상대는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 하나였다.

낙산사는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하면, 관음보살은 바다 위에 있는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다. 보타락가산은 소화수(小花樹), 소백화(小白花), 해도(海島), 광명 등으로 번역한다. 따라서 관음성지는 바닷가 혹은 물과 관련된 곳인 경우가 많다. 낙산사라는 이름도 보타락가산에서 왔다. 671년 의상 스님(625~702)이 창건하며 지은 이름이다. 〈삼국유사〉에는 낙산사 창건 이야기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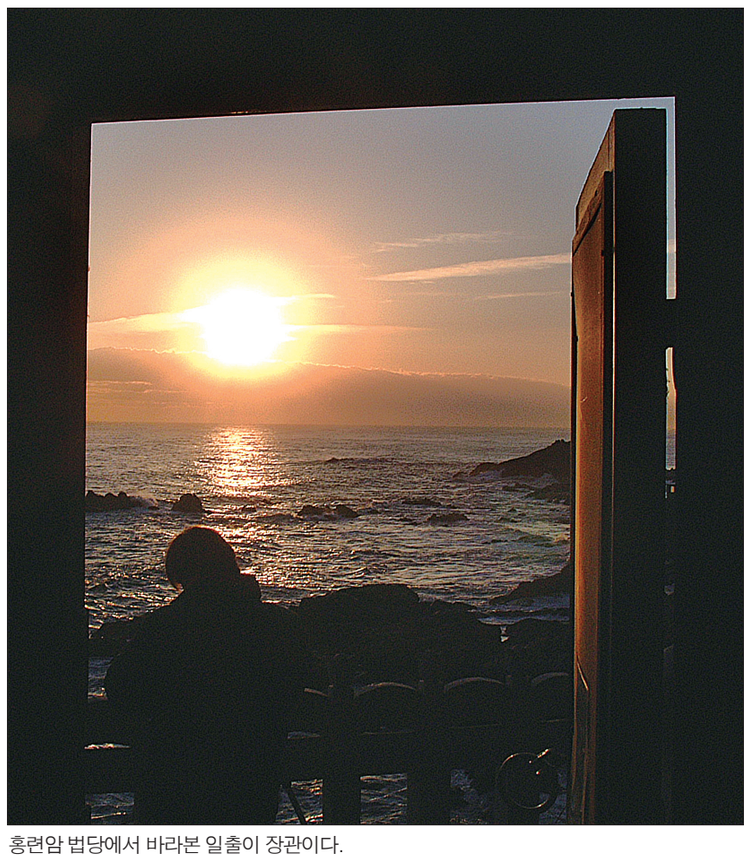
옛날 의상법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무렵이다.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이 이 해변 굴 속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스님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수행 재계(齋戒)한 지 7일 후, 앉았던 자리를 새벽 바닷물에 띄웠다. 용과 하늘 등 팔부신중이 스님을 굴속으로 안내했다. 굴 속에서 공중을 향해 예배하자 수정염주 하나가 나타나서 스님에게 주어졌다. 스님이 받고서 물러나니, 동해의 용이 또 여의주 한 알을 주었다. 스님은 이를 받들고 나왔다. 다시 재계한 지 7일이 되자 관음보살 진신을 친견했다.

관음보살이 말했다. "앉은 자리 위 산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것이다. 그곳에 불전을 짓는다면 좋을 것이다." 스님이 이 말을 듣고서 나와 보니 과연 대나무가 땅으로부터 솟아났다. 곧 금당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여 모셨다. 원만한 얼굴과 고운 바탕이 하늘로부터 생긴 듯하였다. 대나무는 도로 없어졌다. 바로 이곳이 관음보살 진신이 머무는 곳임을 비로소 알았다. 따라서 절 이름을 낙산이라 이름하였다. 스님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성전에 모시고 떠나갔다.

현재 원통보전이 있는 곳이 금당이 있던 자리다.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여러 사연을 간직한 채 여러 곳에 옮겨 봉안하다가, 1466년 세조의 왕명으로 다시 세운 칠층석탑 안에 봉안했다. 의상 스님이 창건할 당시에 3층이었던 탑을 7층으로 다시 세운 것이다.

홍련암서 뵙는 관음보살과 가르침

홍련암은 관음굴 위에 있는 조그마한 법당이다. 스님이 밤낮없이 7일 동안 기도하자 바다 위에서 홍련(紅蓮)이 솟아났고, 그 꽃에서 관음보살이 현신하였다. 이에 홍련암이라 이름하였다.



홍련암 법당에서 바라본 일출이 장관이다.

홍련암 법당은 바닷가 바위와 바위 사이에 걸쳐있다. 창건 당시부터 바다를 볼 수 있도록 법당 마룻바닥에 구멍을 뚫어놓았다. 원래 30㎝ 정도의 크기였다. 그러나 1990년대쯤 사람이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8㎝ 정도의 지금 크기가 되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구멍이었다. 뚜껑을 열면 파도 소리와 함께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유리창이다. 이곳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용이 보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바위 모양이 용 모양처럼 보인다나 어쩐다나. 아니면 바위에 부서지는 하얀 파도와 바위가 어울려 용처럼 보일 수도. 그렇다고 용을 보려고 장기간 용쓰지 말기를.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왜 마룻바닥에 구멍을 만들어 냈을까. 목조건물은 바닷물이 치명적인데 말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 이 구멍을 통해 의상 스님이 친견했다는 관음보살을 후세 사람들도 보게 하기 위해서란다. 또는 의상 스님에게 여의주를 바친 용이 홍련암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란다.

해조음(海潮音)[파도 소리]를 듣기 위한 장치라는 견해도 있다. 〈능엄경〉에는 '부처님께서 자비를 일으켜 대중을 가엾게 여겨 해조음을 보낸다'거나 '관음보살이 해조음으로 세상을 구호하여 평안하게 한다'고 한다. 이때 해조음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자비의 말씀으로 풀이한다. 따라서 마루 구멍은 법당에 참배하는 이들이 해조음을 듣고서 관음보살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장치다. 또는 해조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을 위한 장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리창보다는 구멍이 더 낫겠다고 하겠지만, 소리를 꼭 귀로만 듣는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는다. 이근원통이 있듯이 안근원통(眼根圓通)도 있으니 말이다.



홍련암 전경.



홍련암 법당 마룻바닥 유리창으로 바라본 풍광.

신라 의상 대사가 창건한 사찰
관음보살 진신 친견했다 알려져
파도 소리로 가르침 전해 듣고
내 안의 화마에서 벗어나보자

오늘날 이어지는 관음보살 가피

관음보살의 가피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홍련암 뒤쪽 언덕에는 공중사리탑이 있다. 1683년 홍련암에서 개금불사를 거행할 때 문득 방안이 서기로 가득하더니,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탁자 위에 떨어졌다. 유리처럼 광채를 내고 있었다. 스님들은 옛날에도 있었던 상서로운 일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무려 9년 동안 탑을 쌓고 구슬을 봉안하였다. 이 공중사리탑이 자리한 곳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서 길지라고 한다.

근래에는 경봉 스님(1892~1982)이 홍련암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였다. 스님은 1930년 2월 25일 홍련암에서 삼칠일(21일) 관음기도를 시작하였다. 13일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 눈앞에 다가오는 백의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상서로운 꿈을 경험하고 더욱 새로운 정신력을 얻었다.

혹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하였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보타전에는 칠관음보살, 32응신, 1500분의 관음보살이 있다. 무엇보다 부처님, 사천왕, 스님, 부인, 어린아이 등 다양한 모습의 관음보살 응신(應身)을 보면, 신심이 절로 난다. 불보살님은 중생에 상응하는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비를 베푼다. 이를 응신이라고 한다. 보통 33응신이라 하지만, 낙산사 보타전은 〈능엄경〉 32응신에 의거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타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보타전을 참배하더라도 칠관음 뒤쪽으로 대부분 가지 않는다. 낙산사에 가면 꼭 보타전을 참배하고 꼭 칠관음 뒤편에 자리한 32관음응신을 친견하시라. 우리 곁에 있는 관음보살이 그곳에 자리하시니.

화마 이겨낸 가피 이야기

낙산사 하면,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가 생각난다. 그날 뉴스 화면에는 낙산사가 불타는 붉은 화염으로 가득하였다. 그때 원통보전은 타버렸지만, 법당의 관음보살상은 미리 다른 곳에 모셔 그나마 다행이었다. 사찰 대중의 빠른 대처도 주요했지만, 관음보살상이 건칠불이라서 빨리 다른 곳에 모실 수 있었다. 건칠불은 종이나 베로 만든 불상이다. 건칠불은 철불, 목불, 석불 등에 비해 가볍다. 모든 것이 불보살님의 가피다.

당시 낙산사 화재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신기해하는 부분이 있다. 낙산사 관음보살은 모두 무사하다는 것이다. 원통보전 관음보살은 미리 다른 곳에 모셔 무사하고, 해수관음보살은 화마가 약간 스쳤을 뿐 무사하다. 관음보살이 있는 보타전과 홍련암은 법당 지붕 근처까지 산불이 접근하였지만, 법당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또 하나 있다. 사천왕문이 화마로부터 무사하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관음보살이 무사하다는 이야기보다 필자는 이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1990년대 중반 낙산사 성지순례 때 스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사천왕문은 18세기 말쯤인가 세워진 이래 낙산사에 불이 났을 때마다 무사하던 전각입니다." 이번 화재에도 같은 구역 범종각, 요사채, 원통보전 등은 모두 불타버렸는데, 사천왕문만 무사하였다. 호법신장인 사천왕의 능력 또한 어마어마하다. 혹은 사천왕으로 나타난 관음응신인지. 낙산사를 참배할 때 사천왕에게 인생의 화마에서 벗어날 힘을 기원해보자. 부처님 말씀이 귀에 맴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에 의해 불타고, 성냄의 불에 의해 불타고,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불타고 있고…." 〈잡아함경〉 8권

〈불교학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오직! 마이크소리 구경조건

만으로 전화를 주시면 광고주는 전화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때에만 잠깐 들름니다. 이때! 스님 자신이 기존 법당마이크와 광고마이크를 양손에 쥐고 성능 테스트시 귀 법당 마이크가 장난감 수준정도의 성능 밖에 안되는 것을 100% 실감하신 후 이제는 사찰의 수백만원의 염불시설 투자없이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사찰의 소리가 크게 업그레이드됨의 확신이 올때 광고주와 상담하세요.

주의 : 광고주는 마이크 테스트가 끝나면 신속히 사라집니다.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2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